

시론



김 선 옥
아동문학가·교육학 박사

세상은 끝없이 속도를 재촉한다. 우리는 더 빠르게 일하고,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더 많은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이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산다. 스마트폰의 알림음은 우리의 생각을 끌고, 화면 속 세계는 끊임없이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밀어낸다. 그러나 빠름이 미덕이 된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다. 시간은 많아진 듯하지만, 그 안의 ‘깊이’는 사라져간다. 느낌은 낭비로 여겨지고, 고요는 비효율로 취급된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야말로 느낌은 가장 절실한 생존 기술이자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방법이 아닐까.

한나 아렌트는 “사유하지 않는 삶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녀가 경계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바쁨이었다. 사유는 고요를 전제로 한다. 멈춤 없이 달리는 자는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타인의 생각에 따라 살게 된다. 느낌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우리가 잠시 멈출 때, 비로소 세상의 결을 만지고, 사물의 그림자를 본다. 느낌은 철학의 시간이며,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리듬이다.

소란한 세상에서 필요한 느낌의 기술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성찰은 본질적으로 느낌의 행위다. 빠름은 표면을 스치지만, 느낌은 내면을 파고든다. 빠름의 세계에서 사람은 정보의 소비자가 되지만, 느낌의 세계에서 사람은 의미의 창조자가 된다. 정보를 모으는 것은 기계도 할 수 있지만, 의미를 되새기고 연결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도 불안한 이유는, 아는 것보다 사유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는 동안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빠름은 그 리듬을 파괴한다. 몸이 쉴 틈 없이 바쁠 때, 마음은 둔감해진다. 반대로 걷는다는 것은 느낌 속에서 자신을 다시 느끼는 행위다. 걸음의 리듬 속에서 생각이 흐르고, 감정이 숨을 쉰다. 느낌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빠름의 시대는 효율을 미덕으로 세운다. 그러나 효율은 언제나 관계를 단축한다. 말보다 메시지가 빠르고, 만남보다 영상통화가 편하다. 편리함은 늘 관계의 질을 깎아내린다. 느낌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일, 답장을 서두르지 않고 한 문장을 곱씹는 일,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묻는 일, 이런 느린 행위 속에

서 우리는 다시 사람과 연결된다. 느낌은 따뜻한 또 다른 이름이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자기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별 하나를 낳을 수 있다.” 느낌은 바로 그 혼돈을 견디는 시간이다. 빠름은 혼돈을 두려워하지만, 느낌은 그 혼돈을 사유로 바꾼다. 조급한 사람은 불안을 회피하지만, 느린 사람은 그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한다. 느낌은 단지 속도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내면의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힘이다. 인생의 성숙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서 온다.

현대 사회가 잃은 것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리듬’이다. 계절의 흐름, 하루의 호흡, 사람 사이의 간격이 모두 압축된 시대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고유한 속도를 지닌다. 나무는 천천히 자라며, 물은 제 속도로 흐르고, 인간의 마음도 그 나름의 시간 안에서 성숙한다. 느낌의 기술은 바로 이 ‘자기 속도’를 되찾는 일이다. 세상이 아무리 급하게 달려가도, 나만의 리듬으로 숨 쉬고, 걷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회복이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우리는 정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움직이고’ 있는가. 느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느리게 걷는 사람의 발자국은 더 멀리 울린다. 그 느낌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기술이다.

기고



박 장 soon
송원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

ESG 경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현대기업들이 서로 앞다퉈 수용하고 있는 경영 방식으로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로 구성된 용어이다. ESG 경영은 과거처럼 산업체의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이수하면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구조를 모토(motto)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모토에 준거해 국내 굴지 기업들뿐 아니라, 미용산업체까지 ESG 경영이 확산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경영전략으로 구축되는 양상이다.

미용산업은 ESG 경영 중에서 환경 측면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례로 미용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환경오염 문제로 화학물질 배출, 플라스틱 용기 폐기물의 증가, 탄소(C) 발자국 등을 거론할 수가 있다. 또한 고객 시술을 위해 사용된 뷰티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재활용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헤어살롱에서 고객 모발을 염색, 탈색, 헤어 매니큐어 등 미용시술 시 발생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샴푸대에서 하수구로 유입되는 오폐수

현대 미용산업체에서 ESG 경영의 실천 및 정착 방안

에서도 다량의 인체 유해 화학성분으로 인해 수질 오염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에스테틱숍에서는 고객 얼굴에 시술하는 마스크팩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각종 화장품 용기, 미용 제품의 포장재 등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의 대표로 대두된다. 이러한 사례에 비해 그리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미용산업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은 지구의 기후 변화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이를 묵과하거나 과소평가한다면 지구의 온존층 파괴, 해수면 급상승, 지구 온도의 과열화에 일조할 것은 자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헤어살롱, 에스테틱숍, 네일숍, 메이크업숍과 같은 미용산업체에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일상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선 미용산업체에는 ESG 경영을 접목해 환경오염의 감소를 위한 다양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에스테틱숍에서 사용하는 화장품 용기를 플라스틱 대신 수화에 걸쳐 리필이 가능한 소재의 제품으로 교체한다거나 생분해성 포장재와 종이를 기반으로 한 패키지의 활용을 확대하는 대책도 강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뷰티제품의 소재로써도 창조적 재조명(up cycling)이 가능하다. 한편에서는 커피찌꺼기를 이용해 피부 스크럽(scrub)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식물성 오일을 활용한 비누 제작도 가능해지면서 환경오염 감소와 함께 창의적 브랜드 가치도 더불어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화학성분의 뷰티제품 사용을 줄이고 천연 원료 사용을 확대한다면 더욱 자연 친화적이고 안정성이 강화된 미용시술이 수반될 것이다. 헤어살롱에서는 헤어 커트를 시술한 고객의 머리카락을 그냥 버리지 않고 별도로 모아 보관했다가 농업용 퇴비 소재로 활용하거나 기름유출사고 시 흡수제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조하는 프로젝트도 구상해 볼 만하다. 더불어 미용산업체에서 사용된 폐기물들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고객과 동참하는 리워드 프로그램(Rewards program)도 생각해 볼 만하다.

미용산업체에서 바람직한 ESG 경영을 위한 미래 방향으로서는 뷰티 종사자와 고객 모두 현재 지구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와 실천 교육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협조로 다양한 친환경 정책 도입 및 차별화된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함으로써 미용산업체의 ESG 경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뷰티 마케팅과 비대면 상담을 통한 디지털로의 전환으로 물리적인 자원 낭비를 차단할 수 있다. 이제는 지구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친환경 경영이 단순한 트렌드가 사회적 이슈를 넘어 기업과 미용산업체의 생존 전략과 책임을 묻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밝은 미래를 위하여 미용산업체가 앞장서 환경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태도와 ESG 경영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갈파한다.

독자투고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들판에는 벼가 익어가고, 마을에서는 수확을 준비하는 주민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띈다. 파란 하늘과 시원한 공기가 마음을 한결 여유롭게 하지만 가을은 마냥 평화롭지 않다. 공기가 건조해지고 바람이 강해지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안경찰서에는 논과 밭에서 쓰레기 소각 행위가 일어난다는 신고가 자주 접수된다. 올 봄에도 쓰레기를 밭에서 소각하다가 강한 바람으로 불길이 번져 큰 산불이 발생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예전에도 했는데 아무일 없었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

가을철 화재,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는다

작된 불이 인근 주택이나 산으로 번져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주의와 안일한 생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논이나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수확 후 남은 볏짚과 잡초를 태우고,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버리는 행위는 모두 화재의 원인이 된다.

경찰은 산불 위험 지역과 공터를 순찰하며 주민들에게 화재 예방을 당부하고 있지만, 주민 스스로의 인식 변화 없이는 어렵다. “예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화재 예방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논과 밭에서 소각을 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불씨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려 끄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볏짚이나 잡초를 쌓아둔 곳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율가을, 화재로부터 안전한 마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면 경찰과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불조심에 동참해야 한다.

(정민우·신안경찰서 경무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무장에 건축물 ‘BF 인증’ 0.3% 광주 친화도시 맞나

광주시 등록 장애인인 9월 말 기준 6만8천505명, 노인은 25만7천902명(총인구의 18.5%)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 건축물 비율은 전체의 0.3%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에 따르면 총 14만3천505동 가운데 공공 444곳, 민간 42곳에 불과했다.

특히 486곳 중 ‘최우수’(S등급) 등급은 8곳 뿐이고 대부분 ‘우수’(A등급) 또는 ‘일반’ 수준에 머물렀다. 말뿐인 친화도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광주시의 행·재정적 지원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5년 간 관련 예산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16억8천만원(시비 5억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70개소 1억1천만원이 전부다. 매년 1회 이상 공사하도록 한 인증 현황도 확인하기 어렵다.

재인증 등 시설 유지 관리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동약자를 위한 공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

지는 등 우리가 커지고 있다. BF 인증기간 만료 후 방지되지 않은지 제대로 파악하고, 합당하게 조치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라도 강제할 의무 규정을 뒤야 한다는 요구다.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더욱 안전하게 머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건축물의 필수 기능으로 공공대가 확장돼야 한다. 각종 통계자료가 아니더라도 고령화는 급격히 가팔라져 2050년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시를 재편하는 것은 현실적 과제가 됐다.

더구나 광주시는 장애인, 고령친화도를 표방하고 있다. 민간의 BF 인증 참여를 유도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 시행의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민주인권도시를 기대한다. ‘일상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더 힘써야 한다.

李대통령 AI 대전환 추진 최대 수혜자는 광주와 전남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집중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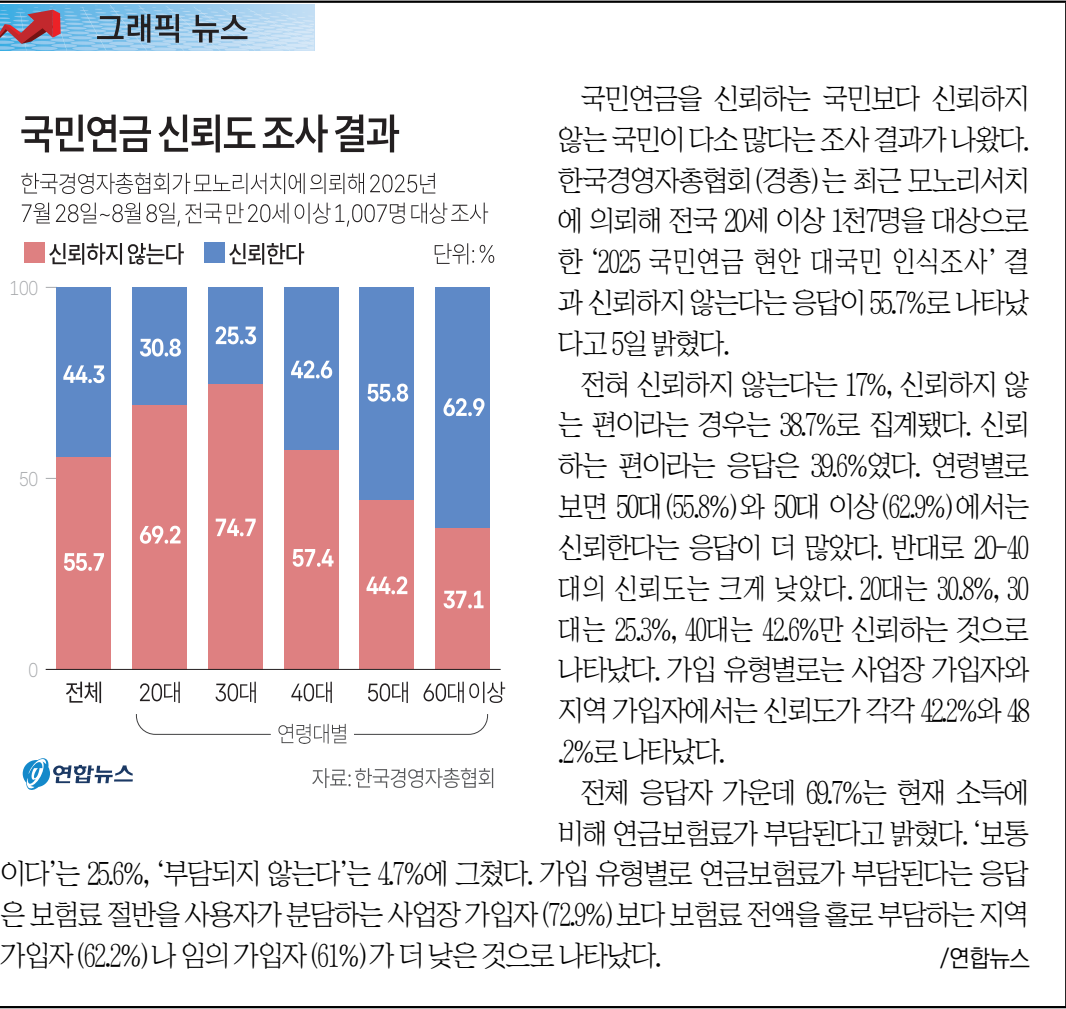
AI 3대 강국을 향한 첫 예산이다. 이 대통령은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퍼지컬 AI 선도 국가’ 비전도 내놔다. 디지털을 벗어나 현실에서 직접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뜻하는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5대 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향후 5년간 약 6조원 투입 계획도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광주는 AI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공격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정책을 통해 클러스터의 연산 자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민간기업과 연구소의 개발 수요를 유인하는 동력이 될 수 있어서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

과인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의 GPU 구매에 주목하는 것이다. 정부는 목표인 3만5천장을 조기 확보할 방침이다. 전남은 자동차가 주력인 광주와 더불어 목포·영암의 조선업, 광양의 팩토리(철강) 등 퍼지컬 AI가 접목될 핵심 산업군을 보유해 합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농경 사회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를 지나 AI로의 대전환기다.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광주·전남에 무한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 물론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AI’를 28차례, ‘국민’을 21차례 언급해 역점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세금을 단 한 톨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첫 관문이 국회 심사로, 내년도 국회 확보에 전력을 결심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고도화를 위한 최대의 호기를 맞았다. 시도민들도 시정연설을 지켜봤다.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 앞서가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한민국의 AI 주권 확립을 주도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정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국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설실부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